

「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」 및
「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」

- 모 두 발 언 -

2019. 1. 21.

금 융 위 원 장
최 종 구

※ 본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1. 인사말씀

□ 안녕하세요.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□ 인천 검단산업단지까지 찾아와 주신
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,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,
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
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.

□ 오늘 간담회는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의
세부 정책과제를 처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.

○ 오늘 간담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변화가
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
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
설비·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
경제 활력저하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.

○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짐에 따라
성장을 감소 추세가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
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

□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
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해
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.

○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
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
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- 이와 함께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 해주는
금융투자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
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.

□ 오늘 말씀드릴

「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」과
「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」은

- ‘자본시장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’
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
첫 번째 노력입니다.

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,
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
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

-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
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
것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전국 1,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
국내 증권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
- 두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
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
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지고
-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
“관계형 장기 투자”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. 발표 과제 주요 내용

(1)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

- 현재 우리 중소·벤처기업들은
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
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기존 증권사는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
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
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중소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
보다 많이,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
-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
‘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’ 도입의 구체적 내용을
마련하였습니다.
- 새로운 중개회사 도입의 기본 원칙은
중소·벤처기업의 “자금조달 원활화”와 “투자자보호”
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.
- 우선,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
진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.
-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,
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하여
신규 진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.
- 인력요건도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하여
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.
 -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,
 -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, 구조조정 자문, M&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·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하겠습니다.
 - 다만, 투자위험이 높은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겠습니다.
-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.
 - NCR,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배제하고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하겠습니다.
 - 다만,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.
- 이를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,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.
 -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·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 - 또한,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 전략적 연계서비스, 업무위탁으로 혁신적 협력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.
- 1사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(2)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

- ☐ 방금 설명 드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
 - 중소·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群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☐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감수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합니다.
 - 비상장 기업도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
- ☐ 이에,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 群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.
- ☐ 우선,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투자경험 요건을 완화하고,
 - 소득 인정기준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손실 감내능력 요건도 정비하겠습니다.
 - 이와 함께,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여 전문투자자 후보 pool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- 다만,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관련 증권사 등의 사후책임은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□ 금번 진입요건 개선으로

현재 2,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
약 37~39만명 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
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□ 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금년
하반기부터 진입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3. 마무리 말씀

□ “창조적 파괴”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는
저서 ‘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’에서

- 금융기관이 혁신 사업가를 발굴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
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「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」,
「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」 방안 등 향후
순차적으로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정책들이

-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활력제고를 뒷받침 하는 주춧돌이
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

□ 아울러, 앞으로 발표될 세부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
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
있어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.